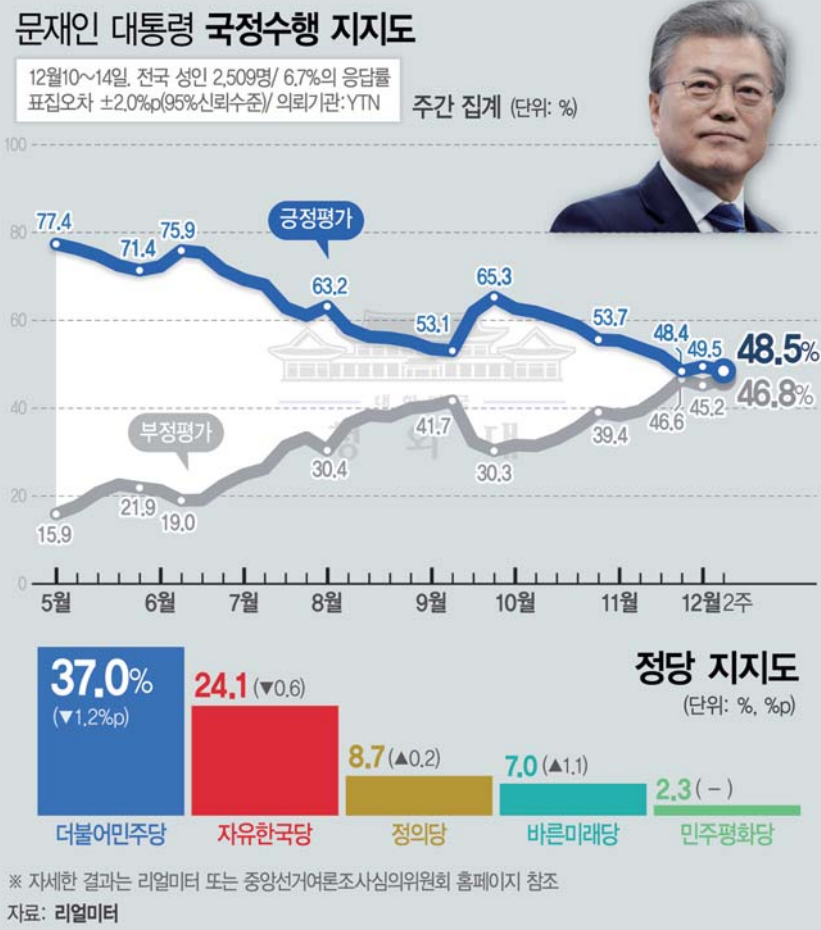


문대통령 지지율 48.5%...다시 하락세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조정 국면에 접어들 듯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금 뒷걸음질 쳤다. 지난주 대비 1%p 떨어지며 최저치를 가까스로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0~14일 낮 12시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12월2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에 따르면 전

여러 악재 겹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에 회복세 민주, 1.2%p 빠진 37.0%...작년 1월4주차 이후 최저 한국 22.8%·정의 7.4%·바른 6.9%·평화 2.7% 순

체 응답자의 48.5%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1.6%p 증가한 46.8%(매우 잘못함 30.1%, 잘못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주 4.3%p까지 벌어졌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1.7%p로 다시 좁혀졌다.

지난 주 9주 연속 하락세를 마치며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떨어지며 부침을 보이고 있다. 최저치(48.4%·11월4주차)를 모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지난 주 초 강릉 KTX 탈선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중·후반으로 접어들며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와 차관급 인사 발표 등이 반영돼 회복세를 보였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최근 이반 현상이 가팔랐던 이른바 '이·영·자(20대·영남·지역업자)' 층에서 영남을 제외한 20대와 지역업자 계층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20대(3.5%p ↓·51.3%)와 지역업(2.0%p ↓·39.4%) 계층이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세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구·경북은 지난 주 대비 3.3%p 소폭 상승한 37.1%를 기록했다.

이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라(8.8%p ↓·59.4%)에서 대폭 하락한 것과 30대(7.6%p ↓·55.0%)에서도 큰 폭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1.2%p 떨어진 37.0%를 기록, 집권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최저 지지율은 2017년 1월4주차에 기록한 34.5%다.

자유한국당(24.1%), 정의당(8.7%), 바른미래당(7.0%), 민주평화당(2.3%)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한국당은 0.6%p 내렸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2%p와 1.1%p 올랐다. 평화당은 변동이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27일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시도

“채용비리국조 민주 9명·한국 6명·바른미래 2명·비교섭 1명”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강원랜드는 없다. 서울시라고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자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건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계특위를 중심으로 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합의문에 보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지는 것”이라며 “이런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여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인상 유예는 여야정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 배분도 당초 8·7·2·1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하니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에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명기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 배분도 당초 8·7·2·1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하니까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진곤 “바른미래 의원 모셔오면 당협위원장에게 유리한 조건 가능”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7일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ym '김효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영두에 두고 당협위원장직 비위했던 이야기가 있다는 사회적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꼭 그분을 위해 자리 비워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응모를 하면 다른 경쟁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도 “민약에 당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꼭 집게로 뽑아오듯이 하면 정치 도의

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학재 의원처럼 옛날에 한국당에 있었던 분으로서 탈당했다가 다시 나는 오고 싶다면 때는 비대위나 해당 당협, 중앙당 비대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조강특위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 지도부에게는 새로 구성되는 정국의 당협위원장이 지지기반인데 이를 허물고 다른 사람들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인적채신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공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손학규, 이학재 의원 탈당 결심에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나” 불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탈당’ 결심을 굳힌 이학재 의원에게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나는 것”이라며 애써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후 “젊은 사람이 미래로 가자고 왜 뒤로 가냐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결정한 이 의원을 동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 받은 국회 정보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의원을 겨냥해 손 대표는 “절에서 뒤편으로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딤냐”면서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그동안 당대표로 취임해서 당을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고 했다”면서 “당 기강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

으로 결의를 다지겠다. 앞으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서 당 기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대구 동울)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를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복당을 영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다른 당 얘기는 할 게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정채성 문제, 보수통합 문제 등을 두고 한국당 복당 여부를 고심해 오다 혼자라도 움직이지는 쪽으로 결심을 굳히며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복당 시기를 저울질했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단식 등으로 탈당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